

GLIF & GIMS 2021



Soonchunhyang,
Overturns to World's
First Success & M...

그리고 다시 100년,
'향설'에게 길을 묻다!



아버지의 나이

시_정호승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댔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계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계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씻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표지설명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GLIF & GIMS 2021(Global Learning Innovation Forum & Global Innovative Medicine Symposium 2021)' 국제 심포지엄이 순천향대 향설아트홀에서 O2O(Online to Offline)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됐다.

순천향

2021.05+06

Vol. 65 통합의료원보

C O N T E N T S

2	SPECIAL	향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6	LOVE	“구미병원은 우리 가족 생명의 은인입니다”
8	FOCUS	순천향대, ‘2021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공동 6위
10	FOCUS	대한민국 최고 석면 전문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12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14	DOCTOR	박세윤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18	VISIT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부센터’
22	ISSUE	서울병원, ‘건강과학CEO과정’
24	ISSUE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경기 서부권 중증환자 거점병원’
26	ISSUE	천안병원, 암센터 10주년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28	ISSUE	구미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30	KNOWLEDGE	헤모글로빈수치 낮은 고관절 환자, 무수혈 치료 가능 확인
32	KNOWLEDGE	실내 생활 증가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주의보
34	KNOWLEDGE	“늘어나는 ‘다태임신’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36	KNOWLEDGE	남성들의 고민, 전립선비대증!
38	EQUIPMENT	천안병원, ‘베리툰-CT’
40	ALUMNUS	백승호 인천백병원장(순천향 의대 7기)
42	NEWS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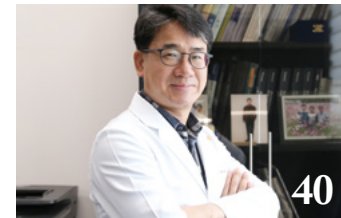
6



14



18



40

「순천향」 통권65호

발행일 2021년 5월 18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한세형,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593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입니다”

순천향 설립자 향설(鄕雪)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평전 발간·기념학술대회 등 설립 정신 기려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좌우명이다.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 향설 서석조 박사가 4월 2일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그의 100주년을 기념해 평전 발간과 학술대회, 순천향대학교 동문(東門) 준공행사, 묘소 참배 등의 기념행사를 준비했다.

교육혁신 국제학술대회(GLIF 2021)와 의학혁신 국제학술대회(GIMS 2021)로 나눠 개최

평전은 ‘서석조 평전-한국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삶’으로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살롱에서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및 봉헌식을 갖았다. 학술대회는 4월 2일 교육혁신 국제학술대회(GLIF 2021)와 4월 3일 의학혁신 국제학술대회(GIMS 2021)로 나눠 개최했다. 향설 서석조 박사는 1921년 4월 2일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일본 경도부립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949년부터 1954년 말까지 미국 뉴저지주 세인트 발나바스병원, 뉴욕 시립 벨뷰병원, 코넬대학 강사를 거치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신경내과학을 연구했다. 미국서 돌아온 후에는 32세에 연세대의대 내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고, 연세대의대와 가톨릭의대에 봉직하며 우리나라의 신경내과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뇌졸중’이란 의학 용어 최초 사용

1962년 가을에 열린 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뇌졸중에 대한 보고’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뇌졸중’이란 용어의 효시가 되었다. 1971년 2월에는 대한신경내과학회 창설을 주도했다. 향설의 소원은 늘 미국의 메이요클리닉과 같은 좋은 병원을 우리나라에 세우는 것이었다. 그 꿈의 시작이 순천향병원 개원이다. 1974년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로 개원한 순천향병원은 하늘에 이치에 따라 인술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널리 구제한다는 광제인술과 인간사랑의 철학을 담고 있다. 환자 진료 외에도 미래 의학을 책임질 전문의 양성의 첫 걸음인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1978년에는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설립하고 순천향 의과대학을 개교했다. 대학교육의 실용성과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주목한 도전이자, 개인적 영달이라는 작은 꿈을 버리고 체계적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적 기여라는 큰 꿈의 시작이었다.

의사이자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의학사에 길이 빛날 업적 남겨

이후 1979년 순천향구미병원 개원, 1982년 순천향천안병원 개원에 이어, 1990년에는 순천향의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2001년에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개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설 서석조 박사는 동은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던 1990년, 마지막으로 환자 진료를 보고, 1999년 12월 19일, 78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개업의로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과대학을 설립한 강한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면모를 갖췄고, 사립대 의료원 제도 정립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학교육뿐 아니라 의료행정가로서 의료계 발전에도 업적을 남겼다. 의사이자 교육자로서의 향설 서석조 박사의 발걸음은 끝을 맺었지만, 그가 평생을 걸쳐 일궈낸 의학적, 문화적 자산과 조직은 지금도 순천향대학교와 산하 병원을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 굳건히 이어지며, 시대에 맞춰 확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순천향대 후문 리모델링, 향설동문(鄕雪東門) 건립 제막식 개최

순천향대(총장 김승우)는 2일 대학의 후문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향설동문(鄕雪東門)이라 명명하는 제막식을 개최했다. 대학의 후문은 대학 설립과 개교의 상징성이 높은 곳으로 현재는 후문 또는 동문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개교 이후 1990년까지 이곳은 대학을 출입하는 주요 관문인 정문으로 활용되던 곳이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향설동문(鄕雪東門)은 지역주민과 재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정서를 위해 자연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문 한편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인 ‘김승우 라운지’를 기부를 통해 마련하였다. 향설동문은 대학과 순천향병원의 설립자이자, 대한민국에서 신경과를 의학 분야로 정립하고 최초로 ‘뇌졸중’이라는 의학용어를 명명한 (故)향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고인이 추구한 인간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메시지를 담아 디자인하였으며 그의 호를

따 향설동문이라 명명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당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어기구 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내 부인사로는 서교일 이사장, 김성구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순천향대, 교육·의료 혁신 글로벌 심포지엄, ‘GLIF&GIMS 2021’ 개최

세계적인 미래교육학자 Marc Prensky 비롯 국내외 최고 석학 참여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세계 교육·의료 석학들과 함께하는 국제 심포지엄인 ‘GLIF & GIMS 2021(Global Learning Innovation Forum & Global Innovative Medicine Symposium 2021)’을 지난 4월 2일 오전 9시부터 이틀간 순천향대 향설아트홀에서 O2O(Online to Offline)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했다. ‘4차 산업시대, 세계 대학교육을 뒤집다’를 주제로 진행된 글로벌 교육 혁신 포럼 ‘GLIF 2021’과 글로벌 혁신의료 심포지엄 ‘GIMS 2021’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세계적인 미래교육학자 Marc Prensky를 비롯해 국내외 최고 석학들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천향대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의사이자 교육자였던 서석조 박사의 교육 이념과 철학에 대한 재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고등교육·의료 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 대학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인재 육성과 보건의료 혁

신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행사에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 문진석 국회의원,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등이 주요 외빈으로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심포지엄 첫날 ‘GLIF 2021’은 미래교육학자 Marc Prensky의 기조연설 ‘교육혁신, 변화하는 우리 사회와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권위이양’을 시작으로, David H. Guston ASU 교수의 ‘애리조나주립대학, 교육의 미래와 국제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튿날 ‘GIMS 2021’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병원경영 혁신, 미래 의료혁신 교육’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메이요 클리닉 이야기>의 공동저자 Kent D. Seltman의 ‘병원 경영 혁신’에 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Yoon Kang(코넬 의과대학 수석부학장), Arnon Afek(Sheba Medical Center 부국장)의 기조연설과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끌고 있는 선구적 제약회사들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김성현 셀트리온 임상기획담당장과 박현진 대웅제약 글로벌사업 및 개발본부장이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주제발표를 가졌다. 마지막 심포지엄에서는 백무준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연구부원장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전세계 가장 큰 화두”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변화와 개혁을 위해 획기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대학·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대학교육, 의료 패러다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변환점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 교육도 혁신 또 혁신 원격의료 통해 임상 경험 쌓아

이스라엘 종합병원 쉬바 메디컬센터 코로나 대응 사례 소개

3일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향설아트홀에서 열린 ‘글로벌 교육·의료 혁신 심포지엄(GLIF&GIMS 2021)’ 2일 차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병원 경영과 의료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병원’에 3년 연속 10위 안에 든 이스라엘 종합병원인 쉬바 메디컬센터 사례가 소개됐다. 쉬바 메디컬센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 빠르게 변화에 나섰다. 이 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전 86개였던 집중치료실(ICU)을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약 400개로 늘렸다. 원래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을 3, 4일 만에 집중치료실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병원 아르논 아펙 협력국장은 “센터가 그동안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병원 인프라부터 치료 방식 등을 모두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면 실습 필요한 해부학도 원격으로 실시간 진료 학습

아펙 국장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도 소개했다. 그는 세계 1위인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에 대해 ‘의료보건 시스템과 정부, 시민이 협력한 결과물’이라고 표현했다. 시민들의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한 홍보와 소통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피자와 맥주 등을 제공하는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정통 유대교인들을 위해서는 전통 음식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아펙 국장은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있는 그대로 알려야 접종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강 미국 코넬대 의과대 수석부학장은 ‘코로나19 시대, 의학

교육의 재편’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시대의 변화한 의대 교육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해 초 뉴욕시에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코넬대 의과대는 고민에 빠졌다. 이에 원격의료를 통해 학생들이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진료를 받는 환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진료하는 법을 배우고, 환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깨치도록 한 것이다. 대면 실습이 필요한 해부학 수업도 원격강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했다. 강 부학장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콘텐츠를 미리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상대로 원격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20년 중부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순천향대 천안병원 사례도 소개됐다. 백무준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원장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의료기관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의학 자문, 감염병 대응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미병원은 우리 가족 생명의 은인입니다”

위급한 ‘다발성 간농양’ 진단...치료 전 과정 지원받고 건강 되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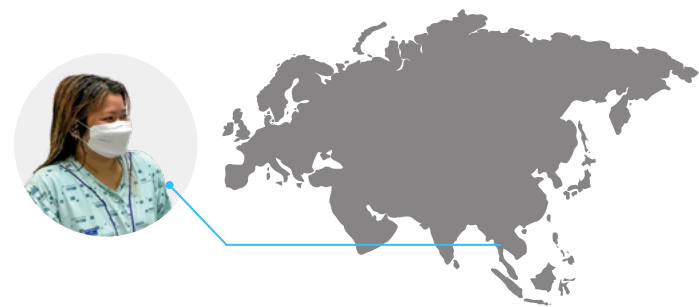
미등록 이주 근로자인 파네 씨는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버섯재배 일을 한다. 월 240만원의 수입 중 절반이상을 태국에 있는 아들의 생활비와 학비로 송금하며 바듯한 생활을 해왔다. 힘든 하루 하루였지만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기쁨과 훗날 고국으로 돌아가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왔다.

“어느 날부터 열이 심하게 나고 상복부에 큰 통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5일간을 참으며 버텼지만,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주지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간 파네 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 내려졌다. 간농양이라는 병으로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원된 곳이 구미병원 응급실이었다.

구미병원 소화기내과 최문한 교수는 “환자는 저혈압과 고열인 상태였으며 CT 촬영결과 6.3cm 정도 크기의 4개의 간농양이 발견됐다”며 “우측 폐의 폐렴이 동반된 상태로 높은 간 수치와 함께 염증 수치는 정상치의 114배까지 높아진 상황이었다.”고 회상한다.

간농양은 세균이나 기생충이 간에 증식해 농양(고름 덩어리)을 형성,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간과 같은 신체 내부에 발병 시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종류에 따라서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질병이다. 또한 패혈증과 복막염 등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 매우 위독한 상태였다.



경북중서부권 최고 수준 ‘경피적 도관 배액술’ 시술

파네 씨 부부는 절망했다. 고열에 시달려 말하기조차 힘들때도 파네 씨는 아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켰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두려웠다.

“태국에 아들을 두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가장 컸어요. 아마도 남편은 내가 잘못돼서 혼자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에게 뭐라고 할지 걱정했을 거예요. 저희 둘 다 모두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가 위급하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담당의 최 교수는 “환자의 경우 비교적 크기가 큰 다발성의 간농양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경험적 항생제 치료뿐만 아니라, 경피적 도관 배액술을 병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최 교수는 “요즘처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열과 폐렴이 동반된 환자는 COVID-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며, 경피적 도관 배액관 삽입을 바로 시행할 수 없어서 의료진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자주 환자와 소통하며 모든 상황을 철저히 대비한 결과 우려와 달리 시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경북중서부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미병원 의료진의 ‘경피적 도관 배액술’이 빛을 발한 결과였다.

구미병원 의료사회복지시스템이 생명을 살린다

구미병원 의료진의 노력 외에도 파네 씨를 죽음의 무턱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미병원의 사회사업실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시술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반수가로 의료비가 책정된다. 파네 씨는 여러 차례 간에 카테터를 삽입하고 농양을 배액하는 시술을 했기 때문에 2500만원 넘는 고가의 의료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구미병원은 협약되어 있는 외국인지원단체를 연계하여 약 40% 정도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희년의료공제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적십자사 희망풍차 기금 등에 지원 신청해 8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았다.

“우리 가정에 새 삶을 만들어 준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과 의료사회복지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병원과 최문한 교수님 등 의료진이 없었다면 큰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간호사님도 오셔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혈관이 약해서 터질까봐 수시로 체크해 주셨고 변정숙 의료사회복지사님도 매



우리 가정에 새 삶을 만들어 준 여러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과 의료사회복지사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병원과 최문한 교수님 등 의료진이
없었다면 큰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일 찾아와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간농양 치료를 잘 마친 파네 씨는 이제 퇴원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 중이다. 치료시 우연히 발견된 난소 종양도 산부인과와 협진해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하루에 4시간 정도 소일거리를 하고 남편과 산책도 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요. 구미병원이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삶이죠. 도움을 준 한국의 모든 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의술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의 따뜻한 마음도 세계 최고예요.”

파네 씨는 그동안 한국에서 꿈꾸던 미래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마주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 파네 씨는 “언제가 제 아들이 성인이 된다면 구미병원과 한국에서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을 직접 찾아 은혜를 갚을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 SCH

순천향대학교, 영국 THE '2021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공동 6위

사립대학 연세대, 한양대 이어 공동 3위, 세계 200위권 순위 기록
'건강과 웰빙' 분야 871개 대학 중 세계 50위, 국내 대학 1위 유지



순천향대학교가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imes Higher Education(THE)이 발표한 2021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Impact Rankings 2021) 국내 공동 6위에 올랐다.

사립대학 중에선 연세대, 한양대에 이어 공동 3위, 세계 200위권의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건강과 웰빙' 분야에서는 지난해 세계 70위에서 올해 871개 대학 중 세계 50위에 올라 국내 대학 1위를 유지했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2019년 처음 시행돼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됐으며, 대학의 교육과 연구 성과에 집중하는 기존 평가와는 달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대학의 책무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글로벌 랭킹이다.

평가항목은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 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등 지난 2015년 UN에서 합의한 17개의 지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이뤄진다.

뉴노멀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구축,

코로나시대에 세계최초 메타버스 입학식 개최

순천향대는 '건강과 웰빙' 분야 외에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분야 국내 2위,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도시와 공동체',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분야에서 각각 국내 3위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며, 전체 종합순위에서도 국내 6위를 차지했다. 그간 순천향대는 '미래한국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순천향 건강한 대학교(SHU)'를 표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O2O(Online to Offline) 실시간중계시스템을 갖춘 124개의 하이브리드 강의실을 구축하고, 세계최초 메타버스 입학식을 개최하는 등 뉴노멀 블렌디드 교육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캠퍼스 라이프 플랫폼을 선보였다. '건강과 웰빙' 분야는 세부적으로 ▲건강과 웰빙을 위한 연구 ▲의료분야 졸업생 배출 ▲건강과 웰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순천향대학의 서울·부천·천안·구미의 4개의 대학 부속병원과 순천향 의생명연구원(SIMS)에서 이루어지는 보건 관련 활발한 연구가



연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순천향대중앙의료원,

지역사회 의료 확대와 코로나 방역 및 글로벌 의로지원

순천향대는 연구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지구촌의 건강 및 웰빙 개선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펼쳤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대두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방역에 앞장서 왔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으며, 부속 부천병원은 경기·수도권2 생활치료센터에 의료를 파견해 수도권 확진 환자 관리를 지원했다.

의대 감염내과 교수 연구진이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전파력과 환자 관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질병관리본부 활동에 자문 활동을 하며 정부 및 세계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대학도 교내 방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산사와 함께 대학 인근 지하철역사 대합실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및 시민들을 대상을 발열체크 봉사를 진행했다. 또 의대 학생들과 대학부속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활발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중앙의료원 산하 '한캄봉사회'와 부속 부천병원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캄

보디아의 의학 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현지 의료진 초청 무료 연수를 진행, 현지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의료원은 KOICA 취약국 사업 예산으로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콩고민주공화국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진단센터 구축 및 의료진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했으며, 순천향대학교 부속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 연구소'는 WHO의 '건강지향정책과 건강도시를 위한 협력센터'로 지정받아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학으로 발전할 것”

김승우 총장은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이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를 통해 인정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세계 대학들의 막중한 책무이며, 순천향대는 앞으로 대학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THE 영향력 평가에는 작년보다 348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해 세계 96개국 약 1200여개 대학이 참여했으며, 순위는 지난 21일 개최된 'THE Innovation & Impact Summit'에서 발표됐다. 

환경 문제 보듬고, 건강한 미래 일군다

순천향의 인간사랑-환경사랑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가벼운 데다 썩지도 않아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렸다. 건축 재료를 비롯해 전기제품, 가정용품 등에서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석면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다. 석면 가루가 호흡기를 통해 몸으로 들어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환들을 일으킨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도 지정했다.

석면, 기적의 광물에서 재앙으로

석면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몸속에서 10년 이상의 오랜 잠복기를 거치며 부지불식간에 생명을 갉아 먹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발굴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절실하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석면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광산, 슬레이트 지붕, 오래된 건축물 등 생활 속 곳곳에 석면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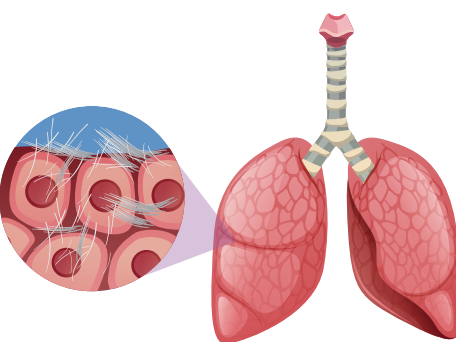
석면재앙 흔적 닦아내는 '순천향'

정부의 석면피해 규명 노력도 어느덧 10년을 넘어섰다. 12년 전 환경부는 순천향과 함께 전국의 석면피해 규명에 돌입했다. 2009년 순천향대천안병원에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센터)'가 세워졌다. 천안병원은 그로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살살이 뒤지며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를 통해 수많은 석면 피해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후관리도 도맡았다.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정책 및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석면 재앙의 깊은 상처와 흔적을 조금조금 닦아내고 있다.

천안병원 석면센터...대한민국 1등 환경성 석면폐질환 전문병원

천안병원은 현재 환경성 석면폐질환에 관련한 전국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천안병원의 위상 이면에는 지역적 인과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충남에는 18개(전국 석면광산의 86%)나 되는 석면광산이 있고, 자연히 많은 석면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천안병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석면질환에 대해 남다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천안병원 석면센터가 벌인 활약은 눈부시다. 우선 충남 석면광산 인근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많은 석면노출 우려지역을 모두 훑었다. 폐석면광산, 석면함유가능광산, 석면공장, 석면하역장 등 석면노출원 인근 주민조사를 완료했다. 석면건강영양조사 실시인원만 3만 명이 넘고, 석면피해자 1,000여 명과 잠재적 석면피해자 300여 명을 발굴해냈다. 석면피해자와 잠재적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진료, 검사, 치료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석면노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관리, 교육, 홍보, 조사·연구사업 등을 통해 잠재적 위험



노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 보고함으로써 정부의 석면피해구제제도 마련과 정착을 주도했다. 이제 센터가 발굴한 피해자들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 각종 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올해도 이어지는 석면건강영향조사

천안병원 석면센터는 올해도 어김없이 ▲경기도 안양시 ▲울산 울주군 ▲충북 청주시 ▲경기도 평택시 ▲서울 노원구 등의 지역에서 석면피해자 발굴활동을 이어간다. 지역을 돌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설문(문진) - 흉부X선 촬영 - 전문의 진찰 등으로 진행되고, 피해 의심자로 분류되면 다시 고해상도CT검사, 폐기능검사, 폐확산능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는다.

환경의학연구소 설립, 역할 크게 늘어

천안병원은 올해부터 석면을 포함한 모든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권역환경보건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권역환경보건센터는 2025년까지 5년간 환경보건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또 2007년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도 진행한다. 천안병원은 석면환경보건센터와 새로 지정된 권역환경보건센터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괄 기구인 환경의학연구소도 새로 설립했다. 

이문수 천안병원장

“받은 사랑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해야죠”



당시 환경성질환 전문병원이 전무하던 국내 현실에서 사명감을 갖고 석면센터 운영을 시작한 지 10여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환경성질환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모든 성과와 공은 순천향정신인 인간사랑으로 고무된 센터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

으로도 축적된 환경관련 선진의료기술과 특화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사회에서 받은 믿음과 사랑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로 보답하고, 국민보건향상과 환경 개선에도 더욱 크게 이바지 하겠다.

이용진 환경의학연구소장

“더 많은 역할로 국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석면센터 12년 운영을 통해 석면피해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선물했기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는 석면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게 됐다. 12년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발전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새로 출범한 환경의학연

구소를 통해 석면환경보건센터, 권역환경보건센터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 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서석조 박사, 한국 ‘신경내과학’의 문을 열다

정신병자를 치료한다는 오해

“여기는 정신병 환자들 보는 곳 아닙니까?”

신경내과가 처음 생길 때만해도 환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많았다. ‘신경’과 ‘정신’을 혼돈해 신경내과를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곳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신경내과는 뇌신경이나 말초신경, 중풍 등을 보는 의료 분야인데 일반 대중들은 모든 정신병을 다 치료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20년 후면 신경내과가 최고 될 것

서 박사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신경외과는 있어도 신경내과는 이름조차 없었다. 모두가 낯설어 했지만 서 박사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비전과 신경내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20~30년 후에는 신경내과가 최우수 진료과가 될 겁니다. 아마 모든 환자들이 신경내과 환자가 될 겁니다.”

서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후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모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서 박사는 마치 먼 미래에서 온 의사처럼 앞날의 일을 예견하곤 했는데 그 중에는 성형외과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나중에는 ‘소피아로렌, 엘리자베스 테일러 닮게 해 주세요’ 하면 병원에서 그렇게도 수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1950년대~1960년대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쯤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서 박사는 미국에 건너가 처음에는 심장내과를 전공하려고 했지만 귀국할 때는 신경내과 전문의가 되어 돌아왔다. 한국전쟁으로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의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다른 모



서 박사는 남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던 분야를 개척했고 그러한 노력과 열정들이 우리나라 의학계에 신경내과를 자리 잡게 하고 체계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 사진은 개원 초기 순천향 천안병원.

든 분야가 그랬겠지만 신경내과는 그 중에서도 더 불모지였다. 진료를 하다고 해도 신경내과와 관련된 약도 거의 없을 때였으니 제대로 치료를 하거나 약을 처방하기도 어려웠다. 초기에는 신경안정제에 속하는 해모마비탈과 메트로마비탈 정도의 제한된 약 밖에 없었다. 이후 서 박사가 신경내과 분야를 개척하면서 나중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신경안정제가 들어오면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됐다. 한 알의 밀알이 나중에는 밀밭을 이룬다는 선경지명으로 서 박사는 남들이 많이 관심을 갖지 않던 분야를 개척했고 그러한 노력과 열정들이 우리나라 의학계에 신경내과를 자리 잡게 하고 체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

내과의 그늘에서 벗어난 신경내과

서 박사는 신경과학회를 독립적으로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우리나라의 신경과는 긴 역사를 가진 뿌리가 깊은 의학의 한 분야이지만 이 분야를 다루는 학회인 대한신경과학회가 창립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1982년에 비로소 공식적인 대한신경과학회가 창립되면서 국내 의학 관련 학회 가운데서는 신생 학회로써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신경과의 교육과 진료는 주로 내과 계통 의사에 의해서 맥이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서 박사는 신경과학회 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신경과의 명맥을 유지하였던 내과계에서 신경과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대부분 신경정신의학회가 아니라 내과학회에 흡수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서 박사는 1960년대 초 독립적인 신경과학회의 창립과 전문의 제도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내과계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학술집담회 형식으로 모이던 모임이 확대되어 1971년 2월 25일 대한신경내과학회가 창립되었으며 서 박사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바로 이 대한신경내과학회가 오늘날 대한신경과학회의 전신이며, 이 학회가 창설되기까지 서 박사의 많은 공로가 있었다. 

순천향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봉장!

올해 미국의료역학회(SHEA) 국제친선대사 선정 세계 18인에 올라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코로나19가 전 세계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뿐만 아니라 의학계 역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등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전 세계에 창궐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위기상황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이 감염내과 의료진이다. 서울병원의 박세운 교수는 그 선봉장 중 한명이다. 의학계가 이 젊은 의사를 주목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의료역학회(SHEA) 위촉장

박세운 교수는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만성 B형 간염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그 시간은 지금 코로나19와 각종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지금의 박 교수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담당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얼마나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하게 실감했습니다. 그들처럼 아픈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박 교수는 결국 어린 시절 꿈을 이뤘다. 순천향 대학교 의대시절, 박 교수는 친한 동기들과 주로 기독교 동아리,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독거노인 분들의 건강을 살피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 교수가 감염내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은사의 이메일 한 통이 계기가 됐다. 현재 서울병원 감염내과에는 김태형 교수, 이

은정 교수, 박세운 교수가 있다. 김태형, 이은정 교수는 박 교수의 스승이다. 평상시 김태형 교수는 박 교수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김태형 교수님의 이메일 한통을 받았습니다. 감염내과가 이제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관심이 있는 전공의는 연락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많은 전공의들이 연락을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연락을 드린 사람은 저 혼자뿐 이더라고요(웃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공 1년차부터 차근차근 경험을 쌓고 연구 활동에 참여했다. 박 교수는 이 시기가 감염내과 의사로서의 밑거름이 된 시기라 회상한다.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다. 최근 코로나19로 더욱 힘에 겨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더 많은 책임감과 의욕이 생겼다.

서울병원,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다

올해 2월 중순 서울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큰 혼란과 위기가 우려됐지만, 침착한 대응과 완벽한 대처로 기대이상으로 빨리 병원을 정상화시켰다. 그 중심에는 감염내과 의료진과 이를 진두지휘한 박 교수가 있었다.

“지금은 병원 전 직원이 백신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도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병원은 조금의 사각지대도 없는 완벽한 방역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병원 전 직원이 톡톡 뭉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히려 코로나 위기가 서울병원을 더욱 완벽한 방역안전지대로 만드는 반전의 계기가 된 셈이다. 특히 이번 서울병원 내 집단감염 후 대처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서울시, 용산구의 역학조사단

도 “이처럼 병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완벽하게 대처하는 병원은 처음”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전 세계 의료진과 감염병에 대해 논하다

최근 박 교수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올해 미국의료역학회(SHEA)가 선정하는 국제친선대사 18인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로 바쁜 와중에서도 연구에 대한 열정이 빚어낸 결과다. SHEA는 세계적인 감염역학, 의료관련감염 분야의 학회로 2009년부터 매년 10명 내외의 감염 전문가를 국제친선대사로 선정하고 있다. 논문 실적 뿐 아니라 경력, 연구 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 국가를 대표하는 감염관리 전문가를 선정한다. 올해는 박세운 교수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내 의사로서는 5번째 선정이다.

“저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감염병 전문의로서 세계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를 감염병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의사로서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친선대사가 되면 경비 일체를 지원받아 직접 미국 병원을 견학하고 오프라인 학술대회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줌(ZOOM) 학술대회와 온라인 병원 투어로 대체됐다. 박 교수는 지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SHEA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여해 ‘손 위생 수행률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관찰횟수’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감염병 전문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감염내과 의사들은 코로나19와 싸우는 한편 이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비마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감염내과 의사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빨리 이를 인지하고 이를 연구해 신속하게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료진과 공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과 제한된 환경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도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에 대한 지식을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의료진도 관리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전문 인력은 박 교수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효과적인 감염관리와 항생제 사용관리, 신종감염병 혹은 재출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감염병 전문 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병원의 감염병 전문 인력과 시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 교수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들의 감염내과 전공 선택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감염내과 의사는 인구 10만 명당 0.47명에 불과하다. 의사 한 명당 감염내과 병상 372개를 맡아야 하는 셈이다. 박 교수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감염병 전문가의 가치(value)와 인력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분명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유행성 감염병이 생겨나는 추세에 맞춰 전문 인력 과 시설도 반드시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주목하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증가와 함께 박 교수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항생제 관리이다. 감염병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관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감염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의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감염병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감시, 안내, 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태거든요. 항생제 내성이나

각종 오남용 등을 막고 더욱 효과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대한 연구에 좀 더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방역과 치료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연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 가지 분야에만 몰두하기에는 부족한 시대라고 판단해서다. “더 많은 분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감염내과는 환자의 특정부분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봐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더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항생제 스튜어드십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그래서 행복한 의사를 꿈꾸다

의사로서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박 교수는 “행복한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그 정확한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지금 의사로

서의 모든 활동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행복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연구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도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병원 내 집단감염 등을 겪으면서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대한 자부심도 더욱 고취됐다고 전했다. “전 직원이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 된 힘과 우리 의료진들의 수준 높은 대처능력은 어느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순천향만이 가진 많은 강점을 살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가장 안전한 병원으로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린 시절, “환자에서 희망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던 박 교수의 인터뷰를 되짚어 본다면, ‘이미 박 교수는 행복한 의사’라는 생각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수부센터, 정형·성형외과 협진 통한 원스톱 집중 치료 제공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부위 중 하나가 손이다. 모든 일은 손으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은 그만큼 많은 위험요소와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은 손 관련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이런 손 관련 질병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 관리 할 수 있는 '수부센터'를 2019년 5월 개편했다.



부천병원 수부센터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뼈와 관절 등 정형외과적 요소 뿐 아니라 피부, 혈관 등 성형외과적인 요소도 복합되어 있는 신체부위가 손이다. 따라서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각각의 특화된 의료기술과 치료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고 협업을 해야만 보다 완벽한 치료가 가능한 부위다. 두 과가 통합 진료로 운영되고 있는 수부센터는 정형외과 김병성 수부센터장을 필두로 김영환 정형외과 교수, 박은수·최창용·남승민 성형외과 교수 등 수부 전문의 교수진으로 꾸려져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특수클리닉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센터 내 특수클리닉은 ▲절단된 손가락이나 손의 신경, 혈관, 인대를 수술 현미경과 미세수술로 재건하는 '미세접합술' ▲사고나 기형으로 인해 손가락이 없을 때 이식과 재건을 통해 복구하는 '손가락 재건술' ▲손가락에 발생하는 결절종, 거대세포종 등 '수부 종양', ▲손가락이 휘어져 있는 '측만지' ▲추위나 스트레스 등으로 손끝이 하얗게 변하는 '레이노 증후군' ▲합지증, 다지증 등 '선천 기형' ▲'수부 화상'과 이로 인한 '반흔 구축' 등 손과 팔에 발생하는 포괄적인 질환에 대해 세부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부천병원 수부센터는 외래 진료실을 비롯해 검사실, 석고실, 재활치료실이 한 공간에 배치되어 전문의 책임 하에 진단과 처치, 치료, 수술 등 모든 치료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또,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는 응급실을 통해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환자의 정상적 일상으로 복귀가 최우선

손 관련 질병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이나 노부부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손 관련 질병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상당수가 오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만성질환이라 장기간의 치료와 관리, 올바른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등도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능적인 면 뿐 아니라 미적인면도 고려해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 관련 질병으로 인한 고질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를 통해 다시 생활의 질을 높여 환자들이 정상적이고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수부센터의 근본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수부센터의 의료진은 각 분야 특화된 부분에 대한 분업과 동시에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의 협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수준을 극대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부 손 관련 질병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타 분야의 질병들도 대학병원이라는 장점을 살려 협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 손 전문병원과는 차별화된 점이다. 또한 일반 병원에서는 검사하거나 치료하기 힘든 희귀질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첨단 설비들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는 점 또한 대학병원 전문센터가 가진 장점 중 하나다.

김병성 수부센터장은 “손에는 뼈, 인대, 연골, 힘줄, 혈관, 신경, 피부 등 여러 가지 조직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 조직에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맞게 수부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는 지름길이며 수부센터는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병원 수부센터는 손 관련 질병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손 관련 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올바른 기준 제공을 통해 관련 의료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INTERVIEW

김병성 수부센터장

“손 질병 전문 치료센터의 기준 만들어 나갈 것”



“수부센터는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전체에 생기는 통증, 질환, 외상 등을 토털 케어하는 곳입니다. 수술,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상황에 맞는 치료로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성 센터장은 “대부분 환자는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의 잘못된 습관 등이 누적된 문제이기에 치료 과정 역시 길게 소요되며 한 번의 치료나 투약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수부센터에서는 각 환자 개인에 맞춘 원스톱 치료 뿐 아니라 사후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교정 등의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는 노인들이 손을 잘 쓰지 않고도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었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고령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연령도 높아졌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이들이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지만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핸드폰 사용, 레저 활동의 증가, 악기 사용 등이 손 질병률을 높이고 있거든요. 수부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수부센터는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상호 보완적인 지식을 적용하고 공동 트레이닝을 통해 보다 완벽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잘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분담해서 치료의 완성도는 극대화한다. “수부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각 파트만을 진료했다면, 이제는 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환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수부센터는 전문 인력과 장비 등도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연구 활동과 학술활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손 질병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수부센터는 이를 지역 사회에 홍보하고 더 많은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수부센터가 손 질병 전문 치료기관의 기준을 만들어 의료계에 기여하겠습니다.”

INTERVIEW

최창용 교수

“기능적 · 미적 모두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치료”

“수부센터는 해부학적으로 수부 및 전완부 특히 팔목 부위까지의 질환을 정형외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치료하는 센터입니다. 센터장인 김병성 선생님과 박은수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창용 교수는 “수부는 인체 조직 중에 외상에 노출이 쉬우며 쉽게 손상을 받



INTERVIEW

박기용 간호사

“보다 많은 전문지식 습득으로 수부센터에 기여할 것”



“27세에 처음 부천병원에 입사해 응급실을 거쳐 지금 수부센터에서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들 세심히 돌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수부센터의 간호사들은 정형외과와 성형외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교육센터를 운영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해 여러 수부관련 질환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최신 동향 등의 폭넓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 모두가 이런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박 간호사는 외래파트 간호사들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특수파트와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부센터 관련 환자의 경우 연령층이 높은 경우가 많기에 보다 세심한 관찰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 교육을 통해 얻어진 지식으로 환자 모두가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으며 의사선생님들의 세심한 설명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 간호사는 처음에는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에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자간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호사는 “수부 관련 골절 외에도 피부상처, 뼈의 염증, 선천적 기형 등의 원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부해 상처전문치료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라며 “환자가 먼저 찾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 의학 전문 '건강과학CEO과정' 18년째

순천향대서울병원, 33기 입학식 개최...대한민국 오피니언 1800명 동문 배출

순천향대서울병원은 4월 15일 오후 6시 동은대강당에서 건강과학 CEO과정 3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CEO를 위한 건강 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인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CEO과정은 'CEO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으로 2003년 국내 최초 의학전문 과정으로 개설했다. 현재까지 18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다. 동문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전도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동문회를 통해 건강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서교일 이사장

김승우 순천향대 총장

이성진
건강과학CEO과정 원장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이성진 진료부원장이 원장 맡아

지금까지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주관 운영한다. 이성진 진료부원장(안과 교수)이 건강과학CEO과정 원장을 맡았고, 김현건 소화기내과 교수가 의학부원장, 최성우 정형외과 교수가 교학부원장을 맡았다. CEO과정은 CEO를 비롯한 전문 경영인과 관리자(임원급),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및 지역 기관장, 정부 투자기관의 임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가 그룹이 대상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강, 의학과 관련한 전문가 강의와 초청 명사의 인문학 특강, 심폐소생술, 가정 응급처치 구호 등을 다룬다.

CEO와 전문교수 간 1:1 주치의 매칭 인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순천향대서울병원의 CEO전담 간호사와 VIP 상담 코디의 동행 진료 의전, 전문 교수와 1:1 주치의 결연, 부부 프리미엄 건강검진, 총동문회원 자격 부여 등의 특전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성진 건강과학CEO과정 원장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의 각 분야 최고 명 의와 '평생 주치의 제도'를 강화하였고, 병원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제도'를 승급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날마다 새로워져라(건강), '먼저 남을 대접해라(우정),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봉사)'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다하기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라'일 것"이라며 "건강, 우정, 봉사가 '건강과학CEO과정'의 정신이 되어 순천향대학교가 꿈꾸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CEO분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경기 서부권 중증환자 거점병원'으로 우뚝 서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4월 2일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환자와 국내의 소외 계층을 돌보며, 부천 권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 승격, 국내 최초 사전 계획에 의한 무수혈 간이식 수술 성공,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전국 2위, 환자경험 평가 전국 1위, 상급종합병원 최초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사대표 자
전거 국토종주팀의 부산 낙동강 하굿둑
도착 기념사진.
◀ 순천향대 부천병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의 축하 영상 메시
지가 전해졌다.(좌측 상단부터 시계 방
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신응진 병원장, 서교일 이사장)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좀처럼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대적인 기념행사 대신 '온라인 기념행사'와 '코로나 극복 노사대표 자전거 국토종주', '20대 청년환자 의료비 후원을 위한 기부 캠페인', '순천향 동료사랑 캠페인' 등 알차고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여 순천향을 설립한 향설 故 서석조 박사의 '의료기관 설립 취지'와 '인간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출투' 대신 '코로나 극복 노사대표 자전거 국토종주'

순천향대 부천병원 노사대표는 개원 20주년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 및 노사 화합을 위한 자전거 국토종주 633km'에 도전해 성공했다. 신응진 병원장과 이재철 병원노조 위원장, 김승원 의료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사대표로 구성된 국토종주팀은 5박 6일간(3월 25~30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출발해 부산 낙동강 하굿둑길(순천향대 부천병원-여주-수안보-월악산 이화령고개-순천향대 구미병원-대구 현풍-양산 물금역-부산 낙동강 하굿둑길)까지 총 633km를 자전거로 달렸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개원 20주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할 수 있는 행사가 제한되어 있고 노동조합 역시 대외 활동에 제약이 있어 코로나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취지로 소규모 야외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던 중 '20살 청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열정'과 '젊음'이었고, 이를 상징

하는 것은 '국토종주'였다. 마침 노동조합에서도 흔쾌히 동의하여 자전거 국토종주가 성사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대표는 국토종주 성공 기념으로 사회공헌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20대 청년환자 의료비 후원을 위한 기부 캠페인' & '순천향 동료사랑 캠페인'

20살 청년이 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형편이 어려운 부천 지역 20대 청년 20명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 캠페인을 벌였다.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1,000여 만 원을 마련했다. 또, '순천향 동료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금의 순천향이 있기까지 20년간 동고동락한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글로 표현하고,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더 나은 부천병원을 만들자고 서로를 응원했다.

개원 20주년 온라인 기념행사 개최

4월 2일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을 준수해 수상 대표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교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병원 발전에 이바지한 장기근속 직원 표창, 모범직원 부서 표창, 특별공로상 등을 수여하고, '개원 2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어 20년간 병원 발전에 노고를 쏟은 교직원들에게 감동을 줬다. 또, 자전거 국토종주와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마련한 2,000여 만 원의 사회공헌

기금을 이날 부천병원 사회사업팀에 전달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미국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위대한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꼽은 '플라이휠(flywheel, 선순환 바퀴) 효과'를 언급하며, "20주년을 맞이하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플라이휠'을 힘차게 돌려서 실력과 함께 영향력 있고, 수백 년을 이어가는 '위대한 순천향'을 만들자"고 말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오늘은 우리 병원이 개원한 지 20주년이자, 설립자 故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미래를 위해 꿈을 크게 가지자. 당장 눈앞의 손익보다는 병원의 존재 이유와 우리 교직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원대한 목표를 갖자. 10년 후 전국 최상의 병원, 전국 최고의 복지 병원, 최첨단 연구병원을 향해 다시 한번 달리자"고 말했다.

한편, 개원 20주년을 맞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사회 각계각층의 축하와 격려 메시지가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작년 1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코로나19 거점 전담 병원'을 맡겠다고 자청했다. 의료진과 직원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과 '사회적 책임감'에 깊이 감사드리며, K-방역의 주역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개원 20주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천안병원, 암센터 10주년 기념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개최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

천안병원 암센터(센터장 백무준)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2011년 개소해 중부권 최고의 거점병원에 걸맞게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 온 천안병원 암센터. 4월 24일 천안 신라스테이 연회장에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암센터 심포지엄’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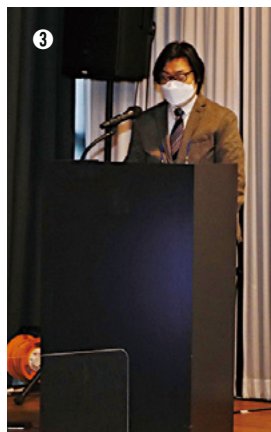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는 30명으로 제한했으며, 그 대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백무준 암센터장의 개회사와 이문수 병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성대한 학술 행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동안 이어졌다.

과거 10년 반추, 미래 10년 조망

‘암,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은 ▲천안병원 암센터의 10년(암센터장 백무준)과 ▲암과 코로나19(감염내과 전민혁 교수)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비롯해 5개 세션에서 총 19개의 연제가 발표됐다. 연제는 암 관련 최신 진단 및 치료법과 경험, 연구 등의 다양한 주제로 ▲순천

1. 이문수 병원장 축사
2. 백무준 암센터장 개회사
3. 감염내과 전민혁 교수 특별강연



향의생명연구원 류성호 교수, ▲임상의학연구소 정동준 교수, ▲종양혈액내과 이상철 교수, ▲순천향의생명연구원 권혁영 교수, ▲외과 강동현 교수,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조인영 교수, ▲외과 안태성 교수, ▲가정의학과 신황식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선 교수, ▲산부인과 전섭 교수, ▲호흡기내과 이호성 교수, ▲종양혈액내과 김한조 교수, ▲소화기내과 이세환 교수, ▲종양혈액내과 이민상 교수, ▲소화기내과 윤홍진 교수, ▲외과 손명원 교수 등이 발표했다. 연제발표 후에는 각자의 진료 및 치료법, 임상경험 등을 공유하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문과 의견은 오프라인 참석자는 현장에서, 온라인 참석자는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진행됐다. 또 지난 10년간 천안병원 암센터의 치료실적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백무준 암센터장(연구부원장, 외과 교수)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암에 대한 그간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나누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며, “지나 온 10년을 발판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암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올해는 설립자인 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생 100주년과 새병원 건립의 첫 삽을 뜨는 해로, 암센터 개소 10주년과 함께 맞아와있어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며, “지금까지 지역 암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해 온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암센터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 발표연제 무한 다시보기 가능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19개의 연제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유튜브 계정에 접속하거나, 직접 유튜브 검색 기능을 통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계정에 들어가면 생생한 세션별 발표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어 시청할 수 있다.

제 10 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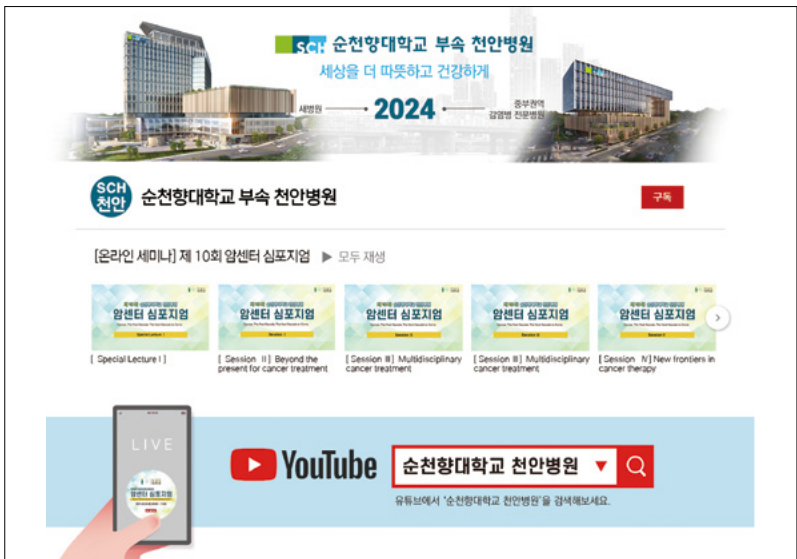
10주년

10주년

암센터 심포지엄

Cancer, The Past Decade, The Next Decade to Come

Special Lecture I	Cancer and COVID 19 좌장: 신장내과 김효욱 교수	감염내과 전민혁 교수	
Session I. Recent advances in cancer treatment and diagnosis 좌장 / 이종순(순천향의생명연구원), 이상한(순천향의대 생화학교실)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류성호	임상의학연구소 정동준	
Precision medicine for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Genomic and functional research of cancers using cancer organoids			
Next-generation sequencing for gastrointestinal cancers	종양혈액내과 이상철 교수		
Session II. : Beyond the present for cancer treatment 좌장 / 송수정(순천향의생명연구원)	순천향의생명연구원 권혁영	외과 강동현 교수	
Current trends in CAR therapy			
Cancer microbiome			
Tumor circulating DNA for cancer diagnosis and treatment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문종석		
Session III. Multidisciplinary cancer treatment 좌장 / 김은석(방사선종양학과 교수), 박동국(단국대병원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조인영 교수	외과 안태성 교수	
Radiation oncologic treatment in SCHCH			
Peritoneal surface malignancies			
Palliative care in clinical oncology practice	가정의학과 신황식 교수		
Psycho-oncological care in SCHCH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선 교수		
Session V. New frontiers in cancer therapy 좌장 / 서기현(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김성용(외과 교수)	산부인과 전섭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호성 교수	
Immunotherapy and cell therapy in gynecological cancer			
Immunotherapy and cell therapy in lung cancer			
New strategies for the management of 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종양혈액내과 김한조 교수		
Targeted therapies for hepatobiliary carcinoma	소화기내과 이세환 교수		
Session VI. All about GIST 좌장 / 정일권(소화기내과 교수), 정해일(외과 교수)	종양혈액내과 이민상 교수	소화기내과 윤홍진 교수	
Perspective on GIST			
Update on endoscopic management on GIST			
Current status of gastric GIST	외과 손명원 교수		
Special Lecture II	Cancer center for 10 years in SCHCH 좌장: 산부인과 전섭 교수	암센터장 백무준 교수(외과)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대구·경북지역 최초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문의 24시간 상주, 입원환자 만족도 UP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임한혁)은 3월 1일부터 32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문의가 없는 야간 및 휴일에도 입원전담교수(전문의)가 병동에 24시간 상주하여 전공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4명의 전문의(소화기내과 1명, 신장내과1명, 응급의학과2명)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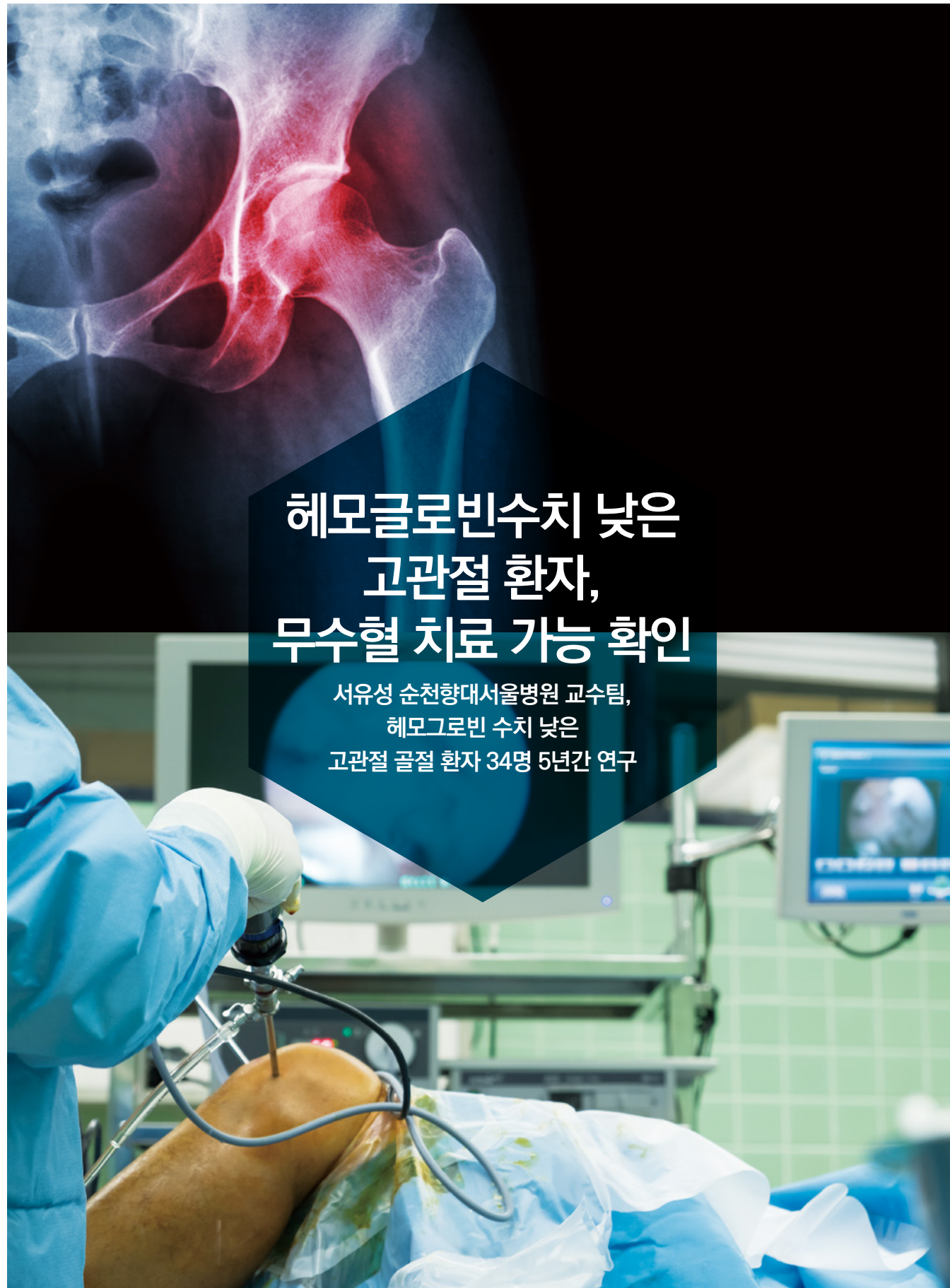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전문의가 없는 야간 및 휴일에도 입원전담교수(전문의)가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 및 수행, 검사 관리, 회진과 상담 등 치료·회복 업무를 전담의가 전담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구미병원이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진료과와의 다양한 협진이 필요한 경우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미병원은 현재 4명의 전문의(소화기내과 1명, 신장내과1명, 응급의학과2명)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배치되어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해당 병동 입원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민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임한혁 병원장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운영을 통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환자들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199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1년 본사업이 전환되었다. 



헤모글로빈수치 낮은 고관절 환자, 무수혈 치료 가능 확인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팀,
헤모그로빈 수치 낮은
고관절 골절 환자 34명 5년간 연구



서유성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팀(노재휘 서종현 장병웅 박종석)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인 고관절 골절 환자 34명에게 환자혈액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해 수술 한 연구 결과를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저널 2021년 3월호에 ‘Hip Fracture Surgery without Transfusion in Patients with Hemoglobin Less Than 10g/dl’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10g/dl(이하 단위 생략)이하인 빈혈 상태의 환자도 혈액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수혈 없이 안전하게 고관절 골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은 다량의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퇴경부 및 전자간 등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수술 전후의 출혈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점 감소하게 된다.

서유성 순천향대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팀(노재휘 서종현 장병웅 박종석)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인 고관절 골절 환자 34명에게 환자혈액관리 프로토콜을 적용해 수술 한 결과를 후향적으로 연구했다.

헤모그로빈 수치 낮은 고관절 골절 환자 34명 5년간 연구

34명 중 대퇴경부 골절은 19명, 대퇴전자간 골절이 15명이었다. 대상 환자 모두에게 수술 전 4,000 유닛의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조혈제)을 주3회 투여하고 100mg 철분제제를 매일 투여하는 환자혈액관리(Blood Management, PBM) 프로토콜을 적용했다.

수술 직전 트라넥사믹산(tranexamic acid-혈전을 분해하는 플라

스민을 억제하여 지혈 작용을 하는 지혈제)을 정맥 투여하고, 수술 중에는 셀세이버(자가수혈회복시스템-수술 중 흘러나오는 피를 모아 원심분리기로 적혈구 성분만 걸러내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시스템)를 사용했다. 수술 후에는 헤모글로빈 값이 10이 될 때까지 수술 전 시행한 환자혈액관리 프로토콜을 유지했다.

평균 헤모글로빈 값은 수술 전 8.9(7.3-9.9), 수술 직후 7.9(6.5-9.3), 수술 5일차 8.1(4.4-9.7), 수술 7일차 8.5(4.5-9.9), 수술 14일차 9.9(5.7-11.1)였다. 평균 출혈량은 206.2±78.7ml였다. 34명 모두 수술 후 빈혈과 연관된 합병증은 없었다.

서유성 교수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이하인 빈혈 상태의 고관절 골절도 수술 전 후 환자 혈액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 수혈 없이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0여 년 전부터 무수혈센터를 개설하고 2019년에는 무수혈 및 환자혈액관리센터로 변경해 무수혈 치료, 최소 적정수혈 치료를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저널 2021년 3월호에 ‘Hip Fracture Surgery without Transfusion in Patients with Hemoglobin Less Than 10g/dl’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허덕현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과 교수

최근 코로나19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노년층에서 장시간 앉거나 누워서 TV를 보다가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수 초 에서 수 분 정도의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기립성 저혈압은 앉거나 누워있던 상태에서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고령층서 발생 빈도 높아 낙상사고에 의한 골절상 유의

어지럼증 외에도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구역감, 전신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기립성 저혈압은 파킨슨병, 다계통위축증, 루이소체 치매, 아밀로이드증, 원발자율신경부전 등 신경계 질환과 갑상선 호르몬 이상, 부신 기능 이상, 당뇨 등 내분비계 질환, 심장질환, 탈수, 빈혈, 다이어트, 임신, 약물 등 원인이 다양하다. 특히 노년층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혈압약,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을 먹는 경우 많이 발생한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립성 저혈압은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낙상사고로 이어져 골절 또는 외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물마시기·근력 운동 등

생활 습관으로 예방

치료 및 완치는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다. 탈수가 원인이라면 충분한 물을 마시고, 약이 원인이라면 약을 변경하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된다. 신경계 질환, 내분비계 질환, 심장질환 등이 원인인 경우는 이를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다만, 치료가 어렵거나 만성적인 질환이 원인이라면 완치는 어렵다. 약물치료는 증상 개선을 통해 일상생활을 돕는 것이 목표다. 미도드린(midodrine), 플루드로코르티손(fludrocortisone), 드록시도파(droxidopa)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수면 시 심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복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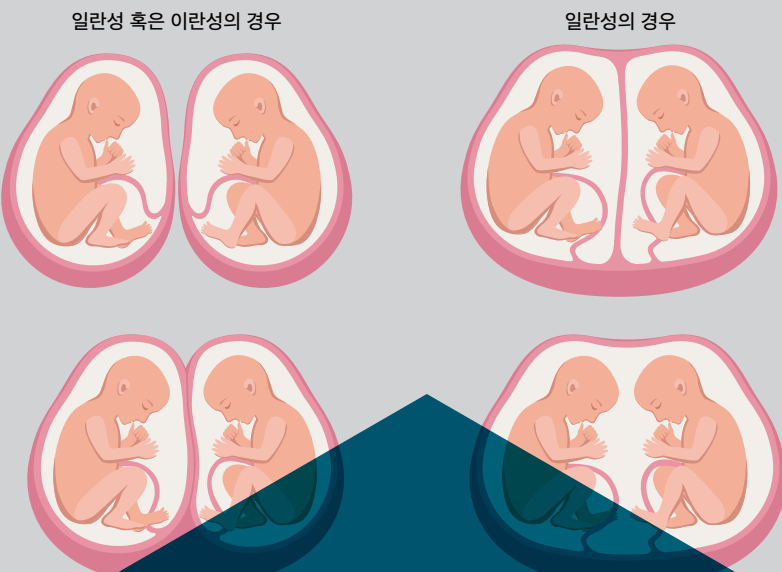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충분히 물 마시기, 천천히 일어나기, 적당한 양의 음식을 천천히 먹기, 과음하지 않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하기, 원인이 되는 약물 중단하기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하면 다리에 압박 스타킹을 신고 배에 복대를 착용하거나, 잠을 잘 때 머리를 약간 높여서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쌍둥이 태반도



일란성 혹은 이란성의 경우 일란성의 경우

“늘어나는 ‘다태임신’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산전 초음파·혈압측정 자주 받아야

태아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다태’라고 한다. 다태는 자연과 인공(시험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 다태는 하나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형성된 하나의 수정란이 2개로 나뉘는 일란성 다태와 난자 2개가 각각 2개의 정자와 만나서 생기는 이란성 다태가 있다. 인공 다태는 1개의 수정란을 이식했는데 하나의 수정란이 2개로 나뉘지는 일란성 다태가 있고, 처음부터 2개의 수정란을 이식해 각각이 태아가 되는 이란성이 있다. 이밖에도 2개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지만 그중 하나의 수정란이 일란성 쌍태아가 되어 총 3명의 태아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김윤숙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자연 다태

임산부의 나이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자연 쌍태임신이 가장 잘 되는 임산부의 나이는 만 37세다. 이 나이에 성선자극호르몬의 영향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난자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35~40세 임산부가 제일 많고, 40세 이상, 심지어 50세 이상 임산부도 있다. 따라서 자연 다태임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인공 다태

임산부의 나이가 증가해 자궁내막종이나 근종도 증가하다 보니 자연 임신율이 떨어지고 보조생식술이 증가하는 것도 다태 증가의 큰 요인이다. 보조생식술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과배란을 시켜서 한 주기에 2개 이상의 난자를 자라게 하다 보니 주로 이란성이 증가한다.

2011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회수 확대와 같은 정부지원이 늘면서 쌍태, 삼태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5년 여성 및 태아의 건강보호와 생명유리 차원에서 최대 이식배아 수를 배양일수에 따라 35세 미만은 1~2개, 35세 이상은 2~3개로 제한하면서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태임신은 매년 4%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험한 다태아, 일란성 > 이란성

다태의 임신초기 자연유산 위험이 단태보다 3배나 높고, 특히 일란성이 이란성보다 더 위험하다. 임신 14주 이후 쌍태 중 1아가 사망할 확률도 일란성이 훨씬 더 높다. 남아있는 1아가 사망할 확률도 일란성은 15%, 이란성은 3%다. 또 남아있는 1아에서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생길 확률도 일란성은 26%, 이란성은 2%다. 다태는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선천성기형, 그리고 자궁내의 좁은 환경으로 인한 곤봉발과 선천성 고관절 탈구 등의 발생위험도 높는데, 이 역시 일란성이 더 위험하다. 저체중아도 쌍태에서 약 30%정도 발생하는데, 일란성이 50%, 이란성이

30%로 일란성이 높다. 조기분만도 약 40%에서 발생하고, 일란성이 60%, 이란성이 40%다. 쌍태아 수혈증후군도 일란성에서만 발생한다.

쌍태아 수혈증후군

태아 2명이 태반 하나를 함께 써서 발생한다. 태반에 있는 혈관을 통해 한 태아에서 다른 태아로 혈액이 과도하게 공급돼 발생하는 것이다. 혈액을 주는 태아는 크기가 작아지고, 양수도 적어지는 반면, 혈액을 받는 태아는 크기가 커지고, 양수과다가 온다. 가장 좋은 수혈증후군 치료는 빨리 진단을 하는 것이다. 초음파로 15~26주에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진단되면 태아경을 양수가 많은 쪽 자궁내로 삽입해 태반표면의 문합혈관을 찾아서 레이저로 응고 소작해 혈액이동을 차단하고, 늘어난 양수도 빼주게 된다. 26주 이후에 진단되면 이런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

산전 초음파 및 혈압측정 자주 받아야,

이상하면 병원으로

임신초기에 최대한 빨리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를 초음파로 확인해야 한다. 일란성은 모든 합병증이 높게 발생하므로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임신초기에는 유산, 2/3분기 이후에는 쌍태아 수혈증후군, 1아 사망여부, 선천성 기형, 조기진통을 미리 알기 위해 최소 2주마다 자궁경부 길이 측정, 태아 체중 측정 등이 필요하다. 일란성이면서 태아 간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태아 크기가 많이 작다면 적어도 1주 간격으로 초음파를 해야 한다. 초음파 검사를 자주 하는 것 외에도 임신 초기부터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경부가 짧거나, 태아가 작은 경우, 배가 뭉치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엔 무리한 운동은 금해야 한다. 활동을 줄이고, 일찍 직장을 쉬는 것이 조산을 막고, 태아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된다. 또한 혈전증의 위험도 높아 미리 압박 스타킹, 압박 반장갑 등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남성들의 고민, 전립선비대증!

초기 약물치료 안되면 수술적 치료 받아야



조규형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쪽의 요도를 감싸고 있는 장기를 말하며 정상적인 전립선의 크기는 약 20그램 정도이다. 정액 성분의 30% 가량이 전립선에서 생산되며 전립선은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요도의 감염을 막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전립선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 조직이 커져 정상보다 비대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전립선을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여 다양한 배뇨 이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은 보통 4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전립선 조직의 증식이 나타나게 된다.

기본 검사를 통해 전립선비대증 진단

전립선비대증의 발생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노화의 과정 중 하나이며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유전적 인자, 가족력, 체질, 영양상태, 인종 등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소변줄기가 약한 증상(약뇨)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빈뇨) ▲소변을 참기 힘든 증상(급박뇨) ▲소변을 배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증상(요주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자주 깨는 증상(야간뇨) 등이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초기에 보통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줄기가 점차 약해지며 이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차적으로 방광 기능 저하 및 신장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방광 기능이 저하되어 방광 내 소변이 남아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요로감염, 방광결석, 요폐 등 다양한 합병증도 나타

날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의 진단을 위한 기본 검사 방법에는 ▲병력청취 ▲직장수지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등의 신체검사 ▲요로감염이나 혈뇨 등의 감별을 위한 요검사 ▲요로폐색에 의한 신부전을 확인하기 위한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전립선암 평가를 위한 혈청 PSA 측정 검사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IPSS)를 이용한 증상 평가가 있다. 요로폐색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속검사, 배뇨후 잔뇨측정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전립선의 크기 및 상태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물치료 안되면 수술적 치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레이저 수술

전립선비대증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별다른 처치 없이 기다려 볼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약물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현재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약물

들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효과가 좋아서 약물 복용만으로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증상 조절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물로 인한 증상 조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반복적인 요로감염, 혈뇨, 요폐, 방광결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술적 치료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지만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도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섭취는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생활이 권장된다. 커피 등 카페인 함유 음료 및 알코올을 줄이는 것도 배뇨증상 개선에 좋으며 따뜻한 물로 좌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혈액 순환을 좋게 하여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소변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참는 경우 점진적으로 방광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뇨 습관이나 상황은 최대한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혁신적인 핵의학 검사장비 ‘베리톤-CT’

기존 감마카메라 대비 절반의 검사시간, 10배 이상 선명한 3D영상 제공

천안병원은 핵의학 영상검사 장비 ‘베리톤CT’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가동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핵의학 검사장비인 ‘감마카메라’의 혁신 버전. 기존 감마카메라가 2차원 검사장비라면 베리톤CT는 3차원이다. 영상을 얻는 카메라(디텍터)가 기존 감마카메라에는 2개가 달려있지만, 베리톤CT에는 12개가 360도 원형으로 달려있다. 12개의 카메라가 환자의 몸을 둘러싼 채 돌아가며 고속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다른 감마카메라에 비해 검사시간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카메라 또한 반도체 방사선 검출기인 CZT(Cardium-Zinc-Telluride)모듈을 사용해 10배 이상 선명한 영상을 제공한다. 빠르고 정밀한 3D 촬영으로 베리톤CT는 특히 심장 등 움직임이 많은 장기와 소아환자들의 검사에도 매우 유용하다.



감마카메라(왼쪽)와 베리톤CT(오른쪽)의 디텍터 비교사진

“안과 밖, 모든 순천향인이 하나가 되도록”

개원으로 시작해 2개 종합병원 설립...14대 동문회장에 추대

순천향 의과대학은 지난 1978년 처음 설립된 이래 수천명의 의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저마다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대학교와 병원에 남아 진료와 후배양성을 병행하는 교수들 뿐 아니라 외부에서 개원의나 봉직으로 일하는 많은 동문들 역시 눈부시게 발전된 지금의 순천향대학병원을 있게 한 일원들이다. 동인천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백병원의 백승호 원장 역시 그 일원 중 한명이다.

유독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백승호 원장이 할머니의 품에서 항상 들었던 얘기가 “승호는 커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였다. 불과 3~5살 아이에게는 ‘의사’라는 것이 무언지도 몰랐지만, 막연히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갔다.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에게 “의사가 뭐예요?” 라고 묻자, “의사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직업이야.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린 백 원장에 머리와 가슴에 ‘의사’라는 직업은 더욱 각인이 되었다.

고등학생이 된 백 원장에게 작은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 줄곧 모범생으로 전교에서 순위권을 다투던 백 원장의 눈에 들어 온 것은 공대였다. 그 당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등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 중 8~9명은 공대를 선택할 정도였다. 결국 선택은 공대였다. 국내 최고 대학 공대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고심 끝에 후기 대학 중 순천향대 의대를 지원했다. 합격은 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대학생살이 불행하다고까지 느껴졌다. 그 생각은 본과에 올라간 후 바뀌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임상과 해부학 등 의학수업을 듣다보니 마치 다른 세상같았다.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1등을 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1등은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웃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은 자신에 대한 테스트로 이어졌다. 남들이 가장 힘들다는 신경외과를 선택한 것이다. “일종의 자학이기도 했고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신경외과는 ‘인간을 개조시킨다’라는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렸거든요”

동네의원이 2개 종합병원으로 성장하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신경외과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매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기에 신경은 예민해지고 춘각을 다루는 순간에는 두려움도 느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하기에 자부심도 컸다.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기성찰의 시간도 되었다. “하루 3시간만 자며 하루에 90명의 환자를 봐야 했던 신경외과 생활은 오히려 인생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함께 트레이닝했던 선배의 제안으로 개인의원에서 2년 3개월을 보내고, 백 원장도 개원을 결심하게 됐다. 친한 동문들과 함께 동업으로 개원을 했지만 1년 반 만에 의견차로 혼자 병원을 꾸리게 됐다. 당시 29명상짜리 동네의원

은 현재 2개 종합병원의 시작이었다.

‘백승호신경외과’로 시작한 작은 동네의원은 이제 동인천 유일의 ‘인천백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되었고, 2016년에는 강화에도 종합병원을 하나 더 설립했다. “처음 29개 병상으로 시작한 병원이 이제는 인천과 강화를 합쳐 600개 병상이 됐습니다. 처음 하고자 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백 원장이 종합병원을 만들고자 할 때, 꿈꾼 목표는 그의 기독교적 신념에서 비롯됐다. 병원직원과 환자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 생각했다. “선교적인 신념으로 종합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조선말기 ‘제중원(濟衆院)’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랬듯 어려운 환경의 어떤 환자든지 무료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14대 동문회장 추대 “안과 밖, 아우르는 동문회 만들 것”

백 원장은 올해 14대 동문회장에 추대됐다. 여러번 고사했지만 항상 곁에서 돕겠다고 자청한 10명의 동기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동안 순천향병원 소속의 선배님들이 동문회장을 맡아왔습니다. 너무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모금을 하며 동문회를 이끌어 왔기에 저의 책임감은 더 큼니다. 저는 대학병원이 아닌, 밖에서 개원의나 봉직의 동문들의 시선으로도 바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아래, 안과 밖을 다 아우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 원장이 밖에서 바라본 순천향대학병원은 이제 대학초년에 느꼈던 열등의식의 대상이 아닌, 자부심의 대상이다. “저희 순천향 의대는 많은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지역의 각기 다른 특성의 환자들을 모두 경험하며 실전을 연마할 수 있었거든요. 타 병원에서 순천향 의대 출신을 가장 선호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힘든 의대시절이었지만 채찍질해주고 조언해 준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있기에 지금의 순천향병원과 저희 동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남겼다. “의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직업이 아닌, 최소한 생명을 살리고, 남을 돕는 직업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진정한 의사는 실력보다 인간성과 사랑, 섬김이 있는 마음가짐이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의사의 직분은 물론 동문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순천향대 9대 총장에 김승우 교수 취임

순천향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김승우(59세)교수가 3월 1일 자로 취임했다. 대학에 따르면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마치고 1994년 대학에 부임한 후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9년부터 재정부장, 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경영부총장을 역임해왔다. 아울러 지난 2월 17일 열린 제43차 이사회에서 순천향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총장 임기는 올 3월 1일부터 4년이다.



순천향대, 2021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선정

순천향대학교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1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순천향대는 오는 11월 25일까지 교내 학생식당(학생회관, 향설1~2관 등) 교내 4개소에서 주중 화·수·목요일 아침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한다. 이 기간동안 학생들은 1식 4000~5000원 상당의 아침 식사를 단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야외 '그라피에' 카페에서는 쌀밥과 음료를 결합한 식사를, 향설1관에서는 한식 뷔페를, 학생회관과 향설2관에 위치한 푸드코트에서는 '에그셀러트', '홍대 쌀국수', '만권화밥', '크양분식', '시골집', '동의명가가' 요일마다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2단계) 선정 패거

순천향대(총장 김승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사업(2단계)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20억원씩 최대 8년 동안 약 15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순천향대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AI·SW 인재 양성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Well-Life 구현'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웰라이프 분야 RAINBOW형 AI·SW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웰라이프 생활-실습형 BLEP(Bigdata-based Living lab Education Platform) 구축, RAINBOW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구축, SW융합대학(가칭) 신설, SW 특기자 전형 신설, 전교생 SW 기초교양 필수화, SW 친화적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천향대 이병택 교수, 과학기술포장 수훈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이병택 재생의학교실 교수가 54회 과학의 날과 66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년 과학 및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포장을 받았다. 이 교수는 그동안 난치성 골절치료를 주입형 골이식제, 심혈관용 항혈전 인공혈관 및 이식형 인공장기 원천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난치성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질환 및 말기장기부전 환자의 치료에 적용하기 위한 조직 재생 및 생체재료연구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제 SCI 논문 292편, 국내 논문 47편, 특허 등록 29건, 기술이전 24건의 연구성과를 거뒀다.

서울병원

LIG그룹, 순천향대서울병원에 5천만원 기부 의료취약계층 지원 위해 쾌척



LIG그룹과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3월 29일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용준 (주)LIG 대표이사와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해 이 기부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주)LIG 최용준 대표이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데 취약계층일수록 어려움이 더 큰 것 같다.”며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 힘든 의료취약계층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LIG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외에 사회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후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LIG넥스원과 LIG시스템, 휴세코 등 계열사와 함께 사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의학도서관 '2021 의학도서관상' 수상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의 의학도서관이 2021년 3월 26일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2021 의학도서관상(단체상)'을 수상했다. 의학도서관상은 질병관리청 외 172개 회원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의

학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에게 수상하는 주재전문분야 도서관 최고의 상이다. 서울병원 의학도서관은 1974년 개관 이래 의과대학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교육, 연구를 지원하는 국제적 수준의 최신 의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학도서관의 모범이 되어 왔다. 임미순 서울병원 의학도서관 팀장은 “의학도서관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의학도서관 상의 주인공이 돼서 기쁘다.”며 “진료, 교육, 연구의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서비스 융합을 통해 미래 지향적 의학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화기병센터,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초음파 진단 워크숍 개최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는 4월 25일(일) 오전 9시부터 제45회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초음파 진단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부위별 정상초음파, 질환별 초음파 소견, Video demonstration의 세션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김태형 교수, 제11회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김태형 감염내과 교수가 4월 22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병원신문 창간 35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김태형 교수는 “이토록 명예로운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수상의 기쁨을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코로나19 대응팀 동료들과 그리고, 국내 감염학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존화장품, 한국부인암재단 통해 서울병원에 마스크 기증

37년 피부 전문가 참존(CHARMZONE)이 비영리 공익단체 한국부인암재단(이효표 이사장)을 통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서유성 병원장)에 마스크 2만장을 기부했다. 2천만원 상당의 KF-94 참존 마스크는 한국부인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효표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를 통해 병원 측에 전달됐다.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은 “마스크를 흔쾌히 후원해 주신 참존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재단을 통해 부인암 예방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이효표 선생님의 뜻에 따라 후원해주신 마스크를 순천향 의료진 및 환자들의 코로나19 예방에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병원



부천병원,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4기 운영기관' 선정

부천병원이 최근 질병관리청 주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4기 운영기관'에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천병원은 2008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1기 운영기관'에 처음 선정된 뒤, 지난 3기까지 줄곧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천식과 폐섬유화증 등 만성기도 질환 관련 인체자원 정보를 축적해왔다. 이번 4기 사업에서는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특발성폐섬유증(IPF) 질환과 해당 질환 대조군의 인체자원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한 인체자원 정보는 정부가 구축한 '공동 분양 지원시스템(KBN-Portal)'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 분양하며 '수요자 맞춤형 자원'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수호 산부인과 교수, 다빈치Xi 로봇수술 500례 돌파



정수호 교수가 최근 여성 질환 로봇수술 건수 500례를 돌파했다. 정 교수는 4월 14일 기준으로 총 517건의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이는 부천병원이 다빈치Xi 로봇수술기를 도입한 지 4년 만으로 경기 서부권 병원 산부인과 교수 중 수술 건수가 가장 많다. 로봇수술기 1대를 보유한 경기도 전체 병원 중에서도 수술 건수가 세 번째로 많아 다양한 로봇수술 경험을 자랑한다. 정 교수는 부인과 암 수술, 근치자궁적출술, 난소수술, 자궁근종절제술 등을 로봇으로 수술하고 있다.

특히 로봇수술 517건 중 암 환자가 16%를 차지해 경인 지역 여성 중증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로봇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여성의 가임 능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지름 0.8cm의 작은 구경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가 작아 여성 환자들의 미용적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장해동 정형외과 교수팀,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 학술대회 '최우수 연제상' 수상



장해동 교수팀(서울병원 정형외과 신병준 교수)이 '제20회 아시아태평양 최소침습척추수술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본 학술대회는 아시아태평양 척추외과 의사들이 모여 최소침습척추수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최신 의료 기술을 공유한다. 장 교수팀은 '요천추부 전외측 접근 유합술 시 좌측 총

장골정맥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분류법'에 관해 발표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 교수팀은 요천추부 전외측 접근 유합술 시 하지 혈액공급을 담당하는 총장골혈관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했으며, 총장골혈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더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병원, '호흡기 질환 진료 잘하는 병원' 선정

부천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호흡기 질환(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 부천병원은 6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6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약제 처방 환자 비율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부천병원은 다학제 의료진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등에 대한 맞춤 진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진단-검사-치료 과정을 한 공간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5일 이내 신속하게 제공한다.

천안병원

이문수 천안병원장, 코로나19 방역 기여 국민포장 수훈



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국민포장은 국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훈장의 하나다. 건국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등과 격을 같이 한다. 이문수 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확산 방지와 치료, 예방접종 등 다양하고 선제적인 역할로 정부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병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즉시 철저한 출입자 관리 및 선별진료를 통해 환자와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내과병동 일부와 응급중환자실을 선제적으로 변경해 중환자 전담치료시설로 활용하고,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에도 적극 힘을 보탰다. 또한 지난해 중부권역 감염병전문병원도 유치하고, 최근에는 중부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모범적인 운영으로 접종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문수 천안병원장, 코로나19 극복위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이 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난해 3월 외교부가 시작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담긴 팸말을 든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문수 병원장은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의 캠페인 로고와 '우리 모두 다 함께' 순천향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팸말을 들고 사진촬영에 임했다.



이비인후과 최성준 교수팀, 만성중이염 비수술적 치료법 개발 착수

천안병원이 만성중이염 환자들의 고막천공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바이오 의료기기 개발에 착수했다. '만성 고막천공 재생을 위한 나노패턴 바이오패치 개발 및 산업화'라는 주제의 연구. 천안병원 이비인후과 최성준(연구책임자), 이치규, 박계훈 교수와 순천향대의과대학 임상약리학교실 김학재 교수 등 4명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최 교수팀은 3년 내 고막세포 재생에 효과적인 나노패턴 바이오패치를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통해 바이오패치를 활용한 비침습적 패치술을 만성중이염 환자 치료에 적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2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도 선정돼 3년간 총 8억원의 연구비 지원도 받는다. 현재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천공은 고막재생술 등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그러나 앞으로 최 교수팀의 패치술이 개발되면 외래에서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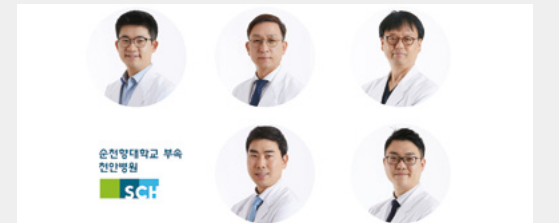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 대한뇌혈관외과학회로부터 우수 연제상 수상



천안병원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가 대한뇌혈관외과학회로부터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오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뇌혈관외과학회에서 '혈전을 동반한 거대 동맥류의 결찰술(Clipping on thrombosed middle cerebral artery aneurysm)'이란 연제발표를 통해 우회술과 클립 결찰술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혈전을 동반한 거대 동맥류는 수술치료도 어렵지만 수술 후에는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

천안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기관이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융복합치료 등을 연구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천안병원은 첨단재생의료기관 지정으로 현재 충청권을 대표해 진행하고 있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의료기술 개발에 더해 보다 넓고 심도 있는 바이오-메디컬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코로나19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 개발 착수

천안병원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 지원하는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개발할 기술은 '스마트 음압 시스템 기반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 방역기술'이다. 천안병원, ㈜해우기술, 이슬테크가 2년간 함께 개발에 나선다. 자동화된 음압시스템을 갖춘 이동형 모듈 선별진료소는 개발되면 코로나19 검사의 신속성과 이동성을 높여 감염확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에 참여하는 병원 의료진은 세부책임자인 핵의학과 유익동 교수를 비롯해 산부인과 전성교 교수, 이비인후과 최성준 교수, 감염내과 박정완 교수, 정형외과 정기진 교수 등 5명이다.

구미병원



장기근속자 및 모범직원 표창장 수여식

구미병원은 지난 4월 2일 본원 향설교육관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임한혁 병원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김우석 외과 교수 외 47명의 교직원에게 근속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병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표창으로 조정미 감염관리팀장 외 2명이 병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임한혁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故 향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설립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인간사랑·환자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남교회, 헌혈증서 164매 기증



구미병원은 지난 4월 16일, 구미남교회 청년부로부터 헌혈증서 164매를 기증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참여가 크게 감소해 혈액부족 사태가 벌어지

고 있는 가운데 구미남교회 청년부는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헌혈을 통해서 모여진 헌혈증서와 기증받은 헌혈증서 등 총 164매를 구미병원 사회사업실에 기증하였다. 16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A형과 O형 혈액은 23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AB형 혈액이 4.7일분으로 가장 보유량이 많았지만, 이마저도 적정 보유량(5일분)을 밑도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남교회 청년부 김현석 회장은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헌혈증이 환자들의 쾌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헌혈을 통하여 따뜻한 나눔과 희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뜻을 밝혔다. 구미병원 사회사업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소중히 사용할 계획이다.

교직원과 함께 하는 힐링 캠페인



구미병원은 교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9일 본관 구내식당 앞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힐링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힐링 캠페인은 2020년 12월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해소와 화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실외활동을 하지 못해서 오는 무기력증이나 길어진 실내생활에 대한 답답함, 나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걱정되는 불안감 등 코로나블루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캠페인을 통해 조용한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힐링 될 수 있는 ‘힐링도서와 아로마캔들’ 실내생활이 길어지면서 떨어진 면역력과 체력을 채워 줄 ‘영양제’ 한잔에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커피쿠폰’ 등 소정의 선물을 뽑기 게임을 통해 선물로 지급하였다. 구미병원은 매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스트레스 해소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 힐링 캠페인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



구미병원은 코로나19 초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9일부터 본원 향설교육관에서 돌봄 중사자, 노인 방문 돌봄 중사자, 보호인력 돌봄 중사자, 투석환자, 항공승무원, 병의원 및 약국종사자 등 정부에서 지정한 초기 접종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구미병원 예방접종센터는 감염예방과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향설교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하였으며, 보건소를 통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정되는 백신을 수령하여 대상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의사와 간호사가 전담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상자들은 내원하여 신원확인부터 예진표 작성, 예진,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접종 받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직접 예약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 전화 및 내원하여 예약신청 가능하다.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